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76382

2014년 8월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논문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에서 오르프이론을 적용한 바이올린 지도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장 하 라

Collection @ chosun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에서 오르프이론을 적용한 바이올린 지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violin teaching method in extra curricular activity in Elementary School applying Orff Pedagogy.

2014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장 하 라

Collection @ chosun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에서 오르프이론을 적용한 바이올린 지도방안 연구

지도교수 김 혜 경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장 하 라

Collection @ chosun

장하라의 교육학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서 영 화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 재 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혜 경 인

2014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Collection @ chosun

목 차

ABSTRACT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3. 연구의 제한점 ····· 3

4. 선행논문의 고찰 ····· 4

Ⅱ. 이론적 배경 ····· 5

1. 특기적성 교육 ····· 5

2. 오르프 음악 교수법 ····· 8

3. 음악과 바이올린 교육 ····· 15

Ⅲ. 오르프 교수법과 바이올린 적용 방안 ····· 17

1. 오르프교수법에서 바이올린 지도방안 연구 ····· 17

2. 특기적성 교육 바이올린 지도방안 ····· 19

3. 설문조사 및 통계 ····· 39

Ⅳ. 결론 ····· 46

참고문헌 ····· 49

부록(설문지) ····· 50

Collection @ chosun

표 목 차

<표 1> 1차시 학습 과정안 ····· 19
<표 2> 2차시 학습 과정안 ····· 21
<표 3> 3차시 학습 과정안 ····· 26
<표 4> 4차시 학습 과정안 ····· 30
<표 5> 5차시 학습 과정안 ····· 33
<표 6> 6차시 학습 과정안 ····· 36
<표 7> 설문지 1번 결과 ····· 39
<표 8> 설문지 2번 결과 ····· 40
<표 9> 설문지 3번 결과 ····· 41
<표 10> 설문지 4번 결과 ····· 42
<표 11> 설문지 5번 결과 ····· 43
<표 12> 설문지 6번 결과 ····· 44
<표 13> 설문지 7번 결과 ····· 45

Collection @ chosun

악 보 목 차

<악보 1> 모방의 예 ····· 11
<악보 2> 탐색 다장조의 예 ····· 12
<악보 3> 탐색 라단조의 예 ····· 12
<악보 4> 악보읽기의 예 ····· 12
<악보 5> 오스티나토의 예 - 캐논 ····· 13
<악보 6> 보르둔의 예 ····· 14
<악보 7> 작은별 A ····· 23
<악보 8> 작은별 B ····· 24
<악보 9> 작은별 C ····· 24
<악보 10> 작은별 D ····· 25
<악보 11> 작은별 E ····· 25
<악보 12> 비행기 E현 ····· 28
<악보 13> 비행기 A현 ····· 28
<악보 14> 비행기 D현 ····· 29
<악보 15> 비행기 G현 ····· 29
<악보 16> 봄바람 ····· 32
<악보 17> 심플보르둔 -호만 ····· 35
<악보 18> 알레그로 ····· 38

dCollection @ chosun

ABSTRACT

A study on the violin teaching method in extra curricular activity in Elementary School applying Orff Pedagogy.

Ha ra Jang
Advisor : Prof. Hae-kyung Kim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sets a goal to improve creativity and effectiveness of education on Violin Teaching Method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begin with, preceding research has been performed through existing studies on the educational philosophy, the teaching method, and the Orff instrument.

In line with the studies, teaching methods, speciality to Violin and the concept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are covered.

In conclusion, there is no special study that covers Violin Teaching Methods and Orff Pedagogy at the same time, and the Violin teaching methods can be achieved as creative as Orff Pedagogy suggests. By applying physical activities to the teaching methods, the students can learn rhythms and beats more easily. The subject is illustrated by the 6^{th} Teaching Plan to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the basis of the Teaching Plan, basic violin lessons were carried

Collection @ chosun

from 1st grade to 6th grade at S Elementary School in Gwangju-si. In addi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by the subject of the lessons at the end of the class to find out the result of the efficiency of the teaching plan.

The teaching plan was comprised of keeping a right posture to hold a violin, a bow, and to study a fingering, bowing, rhythm, and beats as pleasant as Orff Pedagogy suggests.

Furthermore, the students can cultivate a collaboration and consideration by listening each other's sound.

Above mentioned survey explains that the improved teaching plan is productive to provide enjoyable and easy way to learn the violin.

Suggest that this improved teaching method can be a applicable to current school teachers in school, and provide a way to develop the teaching method in violin.

keyword : Orff method, Elementary School , extra curricular activity , Violin

Collection @ chosun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악교육은 '음악'과 '교육'의 서로 다른 영역이 함께 하는 개념으로 음악교육의 목적은 음악을 중시하며, 내적 가치로는 학습자의 음악적, 심미적 경험을 강조하고, 심미적인 음악 경험은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음악교육의 목적과 중요한 관계를 가진다(승윤희, 2000, p.125). 때문에, 음악과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양한 악곡 및 활동을 스스로 경험하게 하여 음악적 능력과 창의성을 개발하고, 풍부한 음악적 정서와 애호심을 함양하게 함으로써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고 생활화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p.2). 학교에서 특기적성 교육, 동아리 활동(CA)을 통해 악기를 배우고, 실력을 쌓은 후 다양한 단체나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통해 연주 활동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음악을 생활화 할 수 있다.

오르프 교수법은 놀이와 대화, 노래, 신체동작, 악기연주들이 통합되어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체험활동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음악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다. 이렇듯 교사는 흥미롭고 다양한 오르프 교수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오르프 교수법의 특징은 리듬악기를 중심으로 음악적 능력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음악활동에 쉽게 참여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음악분야의 특기적성 교육 활동은 주로 악기 중심의 피아노, 플루트, 첼로, 클라리넷, 클래식기타, 드럼 등 여러 수업이 실행되고 있다(윤애지, 2012, p.18).

선율악기라 할 수 있는 바이올린은 꾸준한 연습을 통해 좋은 음색과 음정을 낼 수 있는 악기로써 많은 시간을 들여 훈련해야하는데 이를 참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장윤하, 2011, p.1).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바이올린에 대해 흥미를 잃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처음 악기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즐거운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교사들은 바이올린 학습안을 개발해야한다.

Collection @ chosun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르프 교수법에 바이올린 지도를 적용한 수업안을 구안하여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실기지도를 더욱 흥미롭게 진행 시키고, 특기적성에서 음악교육을 할 때 바이올린을 효율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오르프 교수법을 바이올린 지도안에 적용시킨 사례는 극히 드물게 찾아지는 바, 본 연구가 바이올린 지도법에 유용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Collection @ chosun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은 음악교육의 중요성과 특기적성 교육에서 오르프 교수법을 적용하여 바이올린 학습지도안을 개발하고자 하며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기적성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을 알아보고 바이올린의 특기적성의 교육에 대해 문헌을 통해 알아본다.

둘째, 오르프 교수법의 음악교육철학과 교수방법에 관련된 문헌을 찾아 원리를 살펴본다.

셋째, 오르프 교수법과 바이올린교수법을 적용시켜 학습지도안을 연구하여 특기적성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바이올린 기본자세와 리듬과 박자 공부를 중심으로 6차시 학습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제시된 학습안을 토대로 광주광역시 S 초등학교의 특기적성 바이올린부 1학년부터 6학년 20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에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오르프 교수법 중 바이올린수업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만을 적용시켰다.

둘째,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6차시로 제한하였다.

셋째, 광주광역시 S 초등학생 20명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적용하는 수업 교재는 스즈키 바이올린 교본과 호만으로 하였다.

Collection @ chosun

4. 선행논문의 고찰

본 연구를 위해 오르프 교수법을 적용하여 개발한 다양한 분야의 학습지도안과 특기적성 바이올린 학습지도안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았다.

조주연(2008)은 칼 오르프의 음악교수법을 활용한 음악학습지도 방안을 연구하였고 성지현(2009)은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오르프 음악교수법을 적용한 기악합주 지도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이용혁(2012)은 초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오르프 교수법을 적용한 음악수업 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또한 오르프교수법을 적용한 악기의 논문으로는 박미애(2008)의 초등학교 특기적성 교육을 중심으로 오르프 교수법에 기초한 플루트 실기 지도안연구가 있었고 이지원(2013)은 오르프 교수법을 적용한 초등학교 방과 후 그룹 피아노 수업 지도안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바이올린교수법을 연구한 선행논문으로 진소희(2008)는 시노자키, 호만, 스즈끼를 중심으로 바이올린 특기적성 지도를 위한 기초교재 분석 및 지도방안을 연구하였고, 조현희(2009)는 초등학교 그룹지도를 중심으로 코다이 교수법을 적용한 바이올린 특기적성교육 학습지도안을 연구하였으며 장윤하(2011)는 스즈끼 바이올린 교본 1권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바이올린 특기적성 교육의 효율적 학습지도안을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칼 오르프 교수법을 적용한 교수-학습 지도안의 개발활동이 많이 이루어 졌으나 바이올린 교수법을 적용시키는 연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특기적성 수업시간에 오르프교수법을 적용한 바이올린지도법 연구를 통해 학습지도안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더욱 창의적인 음악을 배울 수 있게 하고 지금도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바이올린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Collection @ chosun

Ⅱ. 이론적 배경

1. 특기적성 교육

1) 특기적성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

교육부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 및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지식 창출의 원동력이 되는 유능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분야에 뛰어난 학생,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학생을 육성하고자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도입하였다(이종태, 2000, p.134).

'특기'란 교육학 영역에서 개념화된 용어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 되는 용어로써 그 사람만이 독특하게 지니고 있는 특별한 기능이나 뛰어난 기술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특기는 음악, 미술, 체육과 같이 예·체능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일정 부분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능력이다(교육과학기술부, 1999).

'적성'이란 어떤 교육이나 훈련 또는 활동에 의해 계발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교육학용어사전). 즉, 적성이란 용어는 교육의 분야에서 "직업 성취, 학업성취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을 계발해주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주로 진로 교육 분야에서 강조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지능 또는 능력은 현재의 가능성을 의미하지만, 적성은 현재 보다 미래에 발현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능력을 의미한다. 결국 적성이란 어떤 특수한 분야에서 잘 할 수 있는 개인의 잠재능력으로서 구체적인 활동이나 직업에 대한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예언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초·중등교사 학교특별활동 직무연수, 특기·적성 교육의 활성화 방안, 2001, p.6).

이와 같은 용어를 정리하면, 특기적성 교육의 범위의 측면에서 볼 때, 특기가 특별한 기능이라는 의미로써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기능을 지칭하고 적성은 특기

Collection @ chosun

에 비해서는 광역의 잠재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특기적성 교육은 구체적인 기능의 습득에서부터 보다 일반적이며 기초적인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그 범위 안에 포함된다. 아울러, 특기적성 교육의 과정상의 특징으로 본다면 수요자 부담의 정규교육과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로서, 정규 교육과정에 비하여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총칭한다. 따라서 특기적성 교육이란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 계발을 위하여 학교에서 정규 교과 외에 수요자 부담 및 선택의 원칙에 의하여 제공되는 모든 프로그램의 총칭이다.

특기적성 교육활동은 다음과 같은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송경헌 외, 2001, p.14-16).

첫째, 특기적성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의 적성이나 소질을 발견하고 신장하는데 기여한다.

둘째, 특기적성 교육은 자유로운 집단 활동을 통하여 협동심, 자주성, 책임감 등 민주 시민의 자질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셋째, 특기적성 교육은 전인 교육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넷째, 특기적성 교육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과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다섯째, 학생의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에 기여한다.

여섯째, 특기적성 교육은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및 교육기관의 참여로 학교의 지역사회의 열린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다. 즉, 특기적성 활동은 자기표현 활동으로서 학교 교육의 수동적 타율적으로 전개되는 교과 학습에서 벗어나 능동적,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개인의 개성과 본래 갖고 있는 발달 가능성을 최대한 신장시키고 발휘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또한 방과 후에 지도교사와 학생이 한데 어울려 학생의 취미, 특기 신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학생의 취미, 특기 신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학생의 소질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정규 교육외의 활동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Collection @ chosun

학생들의 집단 활동을 특성으로 하고 있는 특기적성 교육 활동의 기본적인 성격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정순자 (2003), p.8).

첫째, 특기적성 교육은 집단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활동함으로써 자주적, 실천적인 태도를 몸에 익히는 활동이다,

둘째, 특기적성 교육은 교사와 학생 및 학생 상호간의 논의를 기초로 하는 활동이다.

셋째, 특기적성 교육은 학생의 개성이나 능력의 신장, 협동심 등의 육성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넷째, 특기적성 교육은 각 교과의 학습에 대한 흥미나 관심을 높이는 활동이다.

다섯째, 특기적성 교육은 지, 덕, 체의 조화로운 인간성을 함양하는 활동이다.

이와 같이 특기적성의 특징과 의의를 살펴 본 결과 정규교육과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바이올린 수업에서는 음악 실기 능력 소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바이올린을 매끄럽게 연주를 할 수 있기까지는 물질적, 시간적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기적성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집단 활동인 합주를 통해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본 연구는 특기적성의 특징과 의의를 반영시켜 바이올린수업을 효과적으로 지도 할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2. 오르프 음악교수법

1) 오르프의 교육철학

칼 오르프는 음악적 경험이 빠를수록 음악교육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음악의 기능을 배우기 전에 즉흥적인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음악적 실험을 하게 함으로써 아동의 본능을 자극하여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개발시켜 주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오르프 음악교수법은 음악의 청중으로서가 아니라 음악활동의 참여자로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음악을 만들어 창작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정은 윤성원, 2009, p.41-42).

오르프 슐베르크란 칼 오르프(Carl-orff)와 구닐트 케트만(G. Keetmann)이 작곡한 어린이를 위한음악의 교수-학습방법과 학습 자료를 말하는데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을 배우는 과정은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과 흡사하다.

어린이가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처럼 음악을 배울 때도 먼저 충분한 음악적 경험을 한 후 음악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우게 한다.

악보를 일고 쓰는 법을 먼저 배우는 것은 말을 배우기 전에 글을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둘째, 오르프 슐베르크는 모든 어린이를 위하여 만들어졌다.

음악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이나 특별한 계층의 몇몇 어린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르프 슐베르크>는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이며, 어린이들이 각각의 능력에 따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셋째,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음악교육을 시작한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손유희, 짧은 동시 읽기, 놀이요(놀이할 때 부르는 노래)등의 활동들은 어린이 음악교육의 중요한 재료가 된다.

Collection @ chosun

넷째, 오르프 슐베르크에서는 음악의 기본요소인 리듬부터 교육하도록 한다.

<오르프 슐베르크>에는 음악과 율동(신체표현), 말하기를 하나의 영역 안에 결합시키고 그것들의 기본 요소인 리듬부터 교육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음악적 훈련의 경험이 없는 어린이들에게 리듬 교육을 위한 신체소리와 신체표현(제스춰)을 강조하고, 사람의 음성을 가장 자연스런 악기로서 이용하고 있다.

다섯째, 인간이 진화해 온 과정처럼 음악을 배운다.

원시시대에는 음악과 무용이 하나의 영역이었다. 현대사회로 진화해 오면서 이들이 분리된 것처럼 음악을 처음 배우는 어린이 역시 음악과 무용을 구분해서 교육하는 것보다 통합적 개념에서 교육한다는 것이 오르프 프로그램의 주장이다.

여섯째, 오르프 악기를 사용한다.

오르프악기는 주로 타악기들이며, 이 악기들은 두드리거나 치리를 좋아하는 인간의 본능적 특성과도 잘 맞으며 어린이들의 신체적 발달 특징 즉 어린이들은 대근육은 발달되어있는 반면 섬세한 움직임에 쓰이는 소근육은 아직 덜 발달되어 있어 대근육을 사용해서 연주하는 타악기를 음악수업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르프 악기는 음악수업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며 어린이들이 쉽게 음악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오르프가 악기제작자의 도움을 얻어 개량한 오르프 선율 타악기는 훌륭한 음향을 제공하며 어린이들의 음감 발달과 수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인다.

일곱째, 즉흥연주를 통해 창의성을 개발시킨다.

음악교육의 시작은 모방(따라하기)에서부터 비롯되며 어린이들은 교사를 모방하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즉흥연주, 즉 창작을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즉흥연주와 창작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은 창의성과 독창적인 표현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

여덟째, 그룹수업방식으로 진행되며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오르프 수업은 소규모의 그룹형태로 진행되며 어린이의 음악적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고 서로의 상호 협력을 통해 다양하고 재미있는 음악적 경험을 하게 된다.

Collection @ chosun

이러한 수업방식의 특징은 현대사회에서 개인화, 고립화 단절화 되어가는 타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하며 또한 타인과 마음을 열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오르프 음악교육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기고 느낄 수 있으며 그것을 신체로 표현하거나 악기로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창의성을 개발하고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2) 오르프의 교수방법

오르프의 음악교육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적 능력의 발달은 인간발달과정과 같다. 즉, 원시적 상태에서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따라서 음악학습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서 아동의 자연스러운 활동과 다양한 활동으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발전되도록 한다.

둘째, 음악 구성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리듬'이다. 인간의 뛰는 심장과 비교될 수 있다.

셋째, 리듬의 발생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원초적 음악에 속하는 언어, 율동, 음악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서 음악학습단계에서 가장 일차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넷째, 음악교육의 목적은 아동의 창의성 계발에 둔다. 따라서 다양한 학습매체들은 창의적 방법으로 적용되는데, 실제적으로 즉흥연주 및 표현이 모든 음악학습의 주요 활동이다(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 2008, p.247).

오르프 음악 학습의 내용적 체계는 크게 세 영역으로 구성하는데, '학습 활동적 매체들', '교수법적 요소들', '음악적 요소들'이다. Jane Frazee는 이 세 영역을 Orff Media, Orff Pedagogy, Orff Theory로 분류한다. 실제 학습 안에서는 이 세 영역이 서로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통합적 체계를 이룬다(예술체육 - 학문명백과, 음악교육학).

먼저 오르프의 학습 매체(Orff Media)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Collection @ chosun

첫째, 말하기 (Speech)는 아동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름을 부르거나 인사를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둘째, 신체표현 (Movement)은 신체적인 움직임을 말하는 것으로써, 움직임을 위한 요소는 리듬과 가락 등의 음악요소가 있고 리듬 오스티나토를 사용한 신체표현, 또는 가락 음계를 나타내는 신체표현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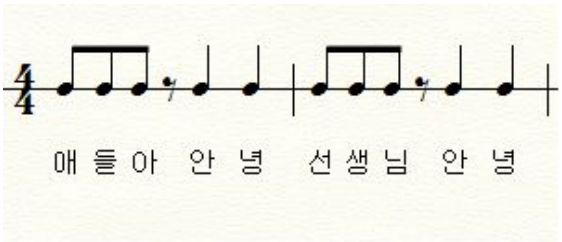
셋째, 노래부르기 (Singing)은 음높이를 사용하여 가락을 만드는 것으로써, 오르프는 코다이가 제시한 음정 사용 순서를 사용한다.

넷째, 듣기 (Listening)는 음악적 활동에서 듣기를 매우 중시하며 모든 활동매체에서 듣기를 강조함으로써 정확한 음의 인지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섯째, 악기연주 (Instruments)는 악기에 의한 음악학습은 놀이학습 방법을 그대로 적용한다. 놀이과정에서 아동들은 자신이 원하는 악기를 음악적으로 구현하도록 한다. 아동들은 악기를 사용하는 놀이를 통하여 소리 내는 논리적 방법과 음향적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지각하도록 한다. 오르프의 악기들은 타악기, 리듬악기, 북, 음판악기, 흔들이 등 다양하다.

다음으로 교수법적 요소들(Orff Pedagogy)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방 (Imitation)은 학습활동매체에서 사용한 말리듬, 또는 가락 등을 창작하는데 있어서 먼저 교사의 시범을 모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면, 교사가 먼저 말 리듬을 사용하여“얘들아, 안녕(888,44)”하면 학생들은 따라서“선생님, 안녕(888,44)”하는 것으로써 같은 리듬꼴을 모방하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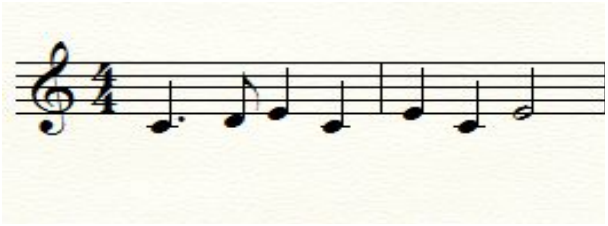


< 악보 1> 모방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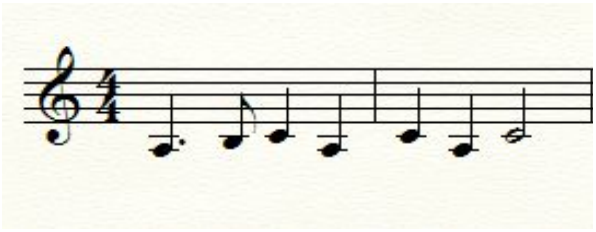
Collection @ chosun

둘째, 탐색 (Exploration)은 모든 학습활동매체를 사용한 교수법을 전개할 때 아동들은 그 각각의 단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탐색해야 한다.

곡의 빠르기, 셈여림 등에 변화를 주어 여러 음색을 느끼게 하고 장조에서 단조로 즉, '도'를 '라'로 바꾸어 단조의 느낌을 체험하게 해 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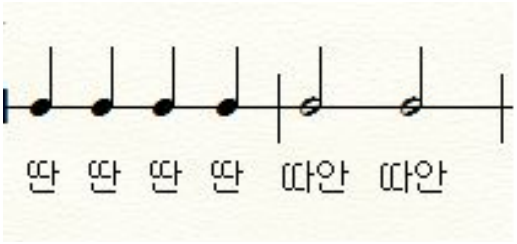


<악보 2> 탐색 다장조의 예



<악보 3> 탐색 라단조의 예

셋째, 악보읽기 (Literacy)는 말 리듬을 한 후 말리듬에 의한 리듬꼴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악보로 읽고, 음표를 사용하여 기보한다.



<악보 4> 악보읽기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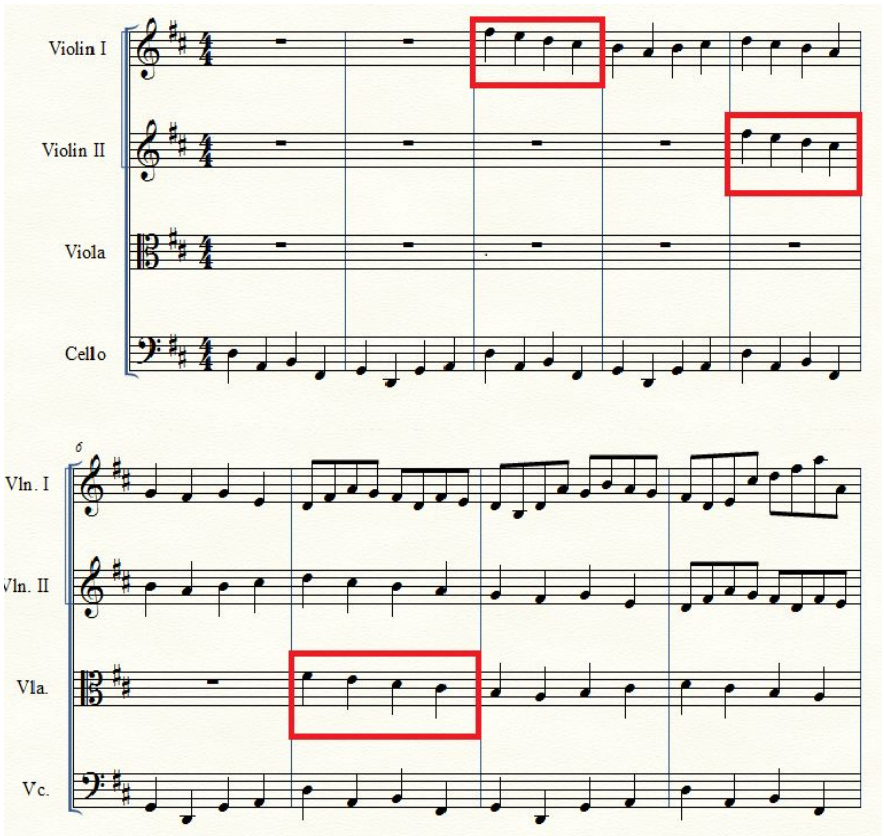
넷째, 즉흥연주 (Improvisation)는 학습활동적 매체를 사용한 수업의 시작단계에서 모방으로 하지만 아동들이 그 원리를 인지한 후에는 즉흥적으로 할 수

Collection @ chosun

있도록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음악적 요소들 (Ofrr Theory)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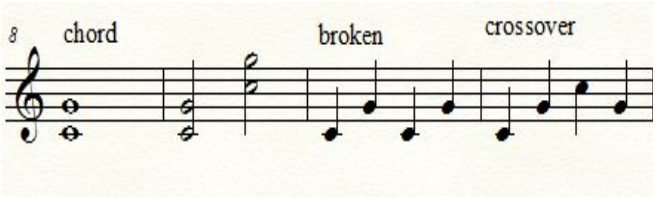
첫째, 오스티나토 (Ostinato)는 어원적으로 고집스럽게 동일한 형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음악에서 동일한 형태를 반복적으로 하는 반주의 형식 또는 리듬, 가락의 동일한 형태의 반복을 의미한다.



<악보 5> 오스티나토의 예 – 캐논

둘째, 보르둔 (Bordun)은 원래는 백파이프처럼 동시에 울리도록 연주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기본음에 5도 또는 한 옥타브의 음을 동시에 연주하는 것으로서 지속적 보르둔 (pedals and borduns)과 이동적 보르둔(moving bordun)이 있다.

Collection @ chosun



<악보 6> 보르둔의 예

셋째, 가락 (Melody)은 음의 높낮이의 변화가 리듬과 연결되어 하나의 음악적 통합으로 형성되는 음의 흐름 또는 음향의 형태를 말한다.

넷째, 다른 형태의 반주(other Accompaniments)는 오스티나토나 보르둔이 익숙해지면 아동들은 다른 형태의 반주로 확대해서 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노래에 어울리는 시와, 운율과 게임, 짧은 노래, 그리고 춤을 만들어볼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3. 음악과 바이올린 교육

바이올린 교육은 기본적으로 음악이 가지는 심미적인 영역의 발달뿐만 아니라 지능개발에도 도움이 된다(진소희, 2008, p.7). 또한 바이올린 특기적성 교육은 피아노와 함께 조기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음악에 있어서 청감각과 운동감감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는 효과로 인해 조기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유럽의 한 연구에서 바이올린 교육은 기본적으로 정서발달과 두뇌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오른손으로 악기를 잡아 현을 누르며 손끝을 자극시켜주며 왼손으로는 활을 잡아서 현을 그어주는 역할을 하며 이렇게 양손을 자극시켜가면서 배움으로써 학생들의 감성적인 우뇌와 이성적인 좌뇌를 고루 발달시키는 악기이다.

그리고 바이올린은 실기능력 향상 외에 정서를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이다. 그리고 합주를 통해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특기적성 교육에 적합하다(조현희, 2009, p.1). 또한 제대로 된 소리를 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악기로서 꾸준히 연습하게 함으로써 지구력이 요구되기도 한다.

한국교육과정 평가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바이올린 특기적성의 교육적 효과와 목적을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한국교육과정 평가연구원 방과후 특별활동 지도방안, 2000, p.26).

첫째, 바이올린의 특성을 알고 정확한 주법으로 연주하는 능력을 기르며 바이올린은 어떤 악기이고 바른 연주법은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익숙하게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일이다.

둘째, 연주활동을 통해 자기가 가진 소질을 계발할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독주 또는 합주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비료를 통한 발전 가능성을 더욱 고조시킨다.

셋째, 합주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친구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독주와는 달리 합주는 각 개인의 기능보다 전체적인 조화를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협동하고 보완해주며 도와주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Collection @ chosun

넷째, 꾸준한 연습을 통하여 점차 익숙하게 연주하게 되면서 음악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알고 있는 명곡이나 동요 등을 직접 연주해 보고자 하는 동격을 하면서 음악을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고 마침내 음악을 생활화하게 되므로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이 넓게 보면 음악은 우리 생활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의 영상매체를 보면 항상 배경음악이 들리고 이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더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학교 수업시간의 시작과 끝을 단순하지만 음악으로 알려주고 있다. 이렇듯 음악적인 환경을 충분히 제공받아 아름다움을 느끼고 미적정서를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바이올린 교육을 적극 지도할 필요가 있다.

Collection @ chosun

Ⅲ. 오르프 교수법과 바이올린 적용 방안

1. 오르프교수법에서 바이올린 지도방안 연구

오르프 음악에 대해 연구하고 탐색한 결과 바이올린 주법으로 적용 가능한 부분은 말하기, 노래 부르기, 신체표현, 악기연주, 모방, 탐색, 악보읽기, 보르둔을 중심으로 지도안을 구성하였다.

바이올린은 양손을 이용해 소리를 내는 악기로써 두 가지 행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 때문에 1차시 수업에서 한 가지 교수법을 적용시키기 보다는 다양한 교수법을 같이 사용하여 적용시킴으로써 더욱 쉽게 바이올린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1차시>에는 개방현을 이용해 보잉을 배우고 말하기를 적용하여 운지법을 배운다.

<2차시>에는 스즈키 교본 중 작은별 변주 통해 모방과 노래 부르기를 적용하여 바이올린을 켤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리듬을 정확하게 연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차시>에는 비행기라는 동요를 통해 악보읽기와 탐색을 적용하여 음표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쉽게 켤 수 있도록 하고 조를 바꿔서 켤 경우 다른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분연습을 통해 박자공부도 하도록 하였다.

<4차시>에는 스즈키 교본 중 봄바람을 통해 신체표현과 악기 연주 중 신체타악기를 적용하여 박자와 리듬공부를 하도록 하였다.

<5차시>에는 호만에 나오는 화음을 이용하여 심플 보르둔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6차시>에는 오르프 교수법 중 악기연주(리듬악기 합주)를 바이올린 합주에

Collection @ chosun

적용시켜 수업하였다. 또한 합주를 통해 서로의 협동심과 배려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오르프 교수법을 적용시킨 지도안을 연구하여 바이올린을 쉽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도록 차시를 연결시켜 수업시간에 교사와 학생 모두 즐거운 수업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Collection @ chosun

2. 특기적성 교육 바이올린 지도방안

1) 1차시 교수 – 학습 수업 과정안

본 교수-학습 과정안 1차시에는 오르프교수법 중 말하기를 적용하여 운지법을 배울 수 있도록 수업안을 작성하였다. 운지는 정확한 음정을 짚어 곡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자세이다. 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악기에 스티커를 붙여 정확한 위치를 짚도록 하고 또한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하며 손가락 첫 번째 마디를 구부려서 바른 자세를 잡을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안녕하세요'는 학생들이 바른자세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본 연구자가 첫 번째 손가락이 90도로 구부려지는 것을 인사하는 것에 접목시켜서 구안한 방법이다.

<표 1> 1차시 학습 과정안

대단원명	바이올린 보잉과 운지 자세		차시	1차시
학습목표	• 보잉을 배울 수 있다. • 운지법을 배울 수 있다.			
학습과정	교수-학습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시간
	교사	학생		
도입	• 인사 • 지난시간에 배운 악기잡는법과 활 잡는 법을 한번 더 알려준다. • 운지 스티커를 붙여준다.	• 인사 • 악기를 조립한 후 악기와 활 잡기를 복습한다. -서로를 확인하면서 바른 자세로 연습한다.	악기, 보면대	15"
전개	1. 보잉 방법 • 개방현을 소리 낸다.	1. 보잉 방법 • 악기를 턱과 어깨로만 잡고		40"

dCollection @ chosun

	- E선 개방현을 긋는다. - A선 개방현을 긋는다. 이때 옆줄 소리가 나지 않도록 브릿지의 각도를 조절하여 팔꿈치를 들게 한다. • 활과 브릿지가 평행이 되도록 정확한 위치에서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알려준다. 2. 운지법 • 엄지손가락이 1번 스티커 옆에 위치하고 손목을 세워서 자리를 잡는다. - 스티커는 정확한 위치와 음정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 손가락 마디를 세워서 손끝으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며 짚도록 알려준다. - 손끝으로 운지를 짚을 경우 음정이 정확하고 테크닉(비브라토)을 통해 다양한 느낌의 곡을 연주 할 수 있다.	활을 잡은 후 개방현 소리 긋기 연습을 한다. -팔꿈치를 들고 내려가면서 옆줄 소리가 안 나도록 천천히 반복하여 긋는다. • 몸통 앞쪽으로 뻗어 소리가 단단하고 정확하게 나도록 연습한다. 2. 운지법 • 엄지의 위치를 확인한 후 손가락을 1번부터 3번까지 누르면서 “안녕하세요”를 외치며 누른다. • 현과 손가락이 빈틈이 없도록 눌러준다. - 빈틈이 생길 경우 정확한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면서 연습한다.	오르프 교수법 말하기를 적용	
정리	• 보잉을 하면서 운지를 정확히 짚도록 확인한다. • 악기를 정리시킨다.	• 개방현 보잉을 10번 연습한다. • 악기를 분리하여 정리한다.	정확한 자세를 확인	5"
	• 작은별 변주곡에 대한 차시예고를 한다.	• 다음시간에 배울 내용을 듣는다.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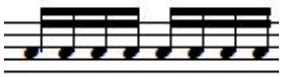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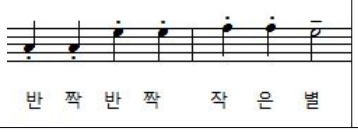
2) 2차시 교수 – 학습 과정안

본 교수-학습 과정안 2차시에서는 리듬을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바이올린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예시 곡으로 제시된 곡은 스즈키 교본에서 사용되는 작은별 변주곡이다. 오르프 교수법의 모방과 노래 부르기는 다양한 리듬을 연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업 중 선생님이 먼저 노래를 불러 학생들이 따라 부르도록 연습한 후 악기로 연주 하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연습하면서 자신의 보잉 자세도 더 정확하게 확인 해 볼 수 있다.

<표 2> 2차시 학습 과정안

대단원명	다양한 리듬 학습		**차시**	2차시
학습목표	• 리듬에 맞추어 노래 부를 수 있다. • 작은별 변주곡을 연주할 수 있다.			
학습과정	**교수-학습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시간**
	교사	**학생**		
도입	• 인사 • 악기를 조율한다. -피치 443에 맞춰서 한다. • 지난시간에 배운 보잉과 운지법을 다시 한 번 알려준다.	• 인사 • 악기를 조립하고 선생님께 조율을 받는다. • 보잉과 운지법을 연습하여 정확한 소리가 나도록 한다. - 보잉위치, 스티커위치, 활의 각도를 모두 확인한다.	악기, 보면대,	15"
전개	* 악기로 연주하기 전에 입으로 노래를 먼저 불러 리듬을 정확히 익힌다. * 노래를 부르고 난 후 악기로 연주한다.	• 선생님이 불러준 노래를 듣고 난 후 학생들이 따라서 부른다.	오르프 교수법 모방과 노래부르기를 적용	

Collection @ chosun

	1. 작은별 A • “자동차가 빵빵”이라는 가사를 불러본다 2. 작은별 B • 본인의 이름이나 학교이름을 넣어서 노래 부른다. 3. 작은별 C •“별나라 달나라”라고 가사를 넣어 노래 부른다. 4. 작은별 D •“자동차가 달려간다”라고 가사를 넣어 노래 부른다.  5. 작은별 E •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별 노래 “반짝반짝 작은별”을 불러본다.  	• 노래를 부를 때 선생님이 제시해준 박자에 맞춰서 부른다. • 가사를 입을 크게 벌려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 부른다. • 큰소리로 여러 번 반복하여 노래 불러본다. • 악기로 연주하기 전에 입으로 한번 부르고 악기연주한번을 반복하여 리듬을 정확하게 익힌다. • A-D까지 반복하여 연습 한 후 E를 정확한 운지를 짚어 연주한다. •작은별 E를 연주할 때 2분음표 박자길이를 정확히 채워서 연주한다.		40"

Collection @ chosun

정리	• 작은별변주를 다시 한 번 노래를 불러보게 한다. • 악기를 정리시킨다.	• 입으로 노래를 불러 리듬을 확인한다. • 악기를 분리하여 정리한다.	리듬 노래 부르기	5"
	• 비행기에 대한 차시예고를 한다.	• 다음시간에 배울 내용을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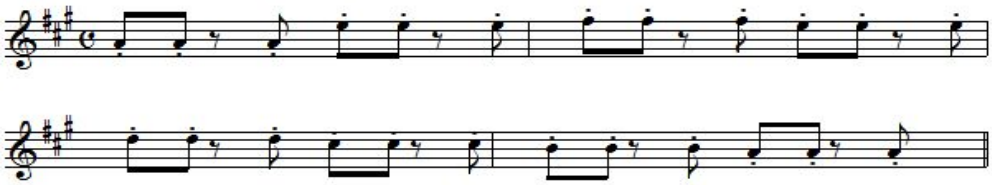
작은별

<악보 7> 작은별 A

스즈키 교본(p.9)의 작은별 A는 16분음표와 8분음표를 혼합시켜 놓은 리듬으로써 처음 바이올린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리듬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곡이다. 그리고 A현과 E현 운지의 계이름과 손가락번호를 배울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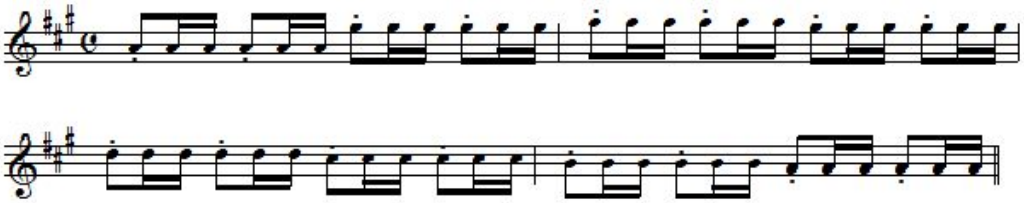
B



<악보 8> 작은별 B

작은별 B는 8분음표와 8분쉼표를 합쳐서 만들어 놓은 리듬이다. 이를 통해 8분음표와 8분쉼표의 길이를 정확히 공부 할 수 있다. 단순해 보이지만 똑같은 음이 지속되는 중간에 쉼표가 들어감으로써 학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리듬이다.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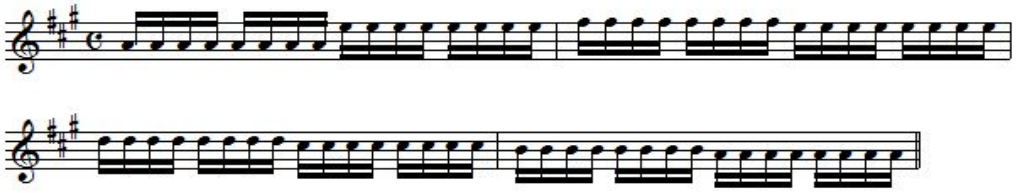


<악보 9> 작은별 C

작은별 C는 8분음표와 16분음표의 혼합된 리듬으로 8분음표는 반활 16분음표는 반의반 활을 정확히 나누어 연습하도록 할 수 있다. 똑같은 리듬꼴이 두 번 연속 나옴으로써 8분음표의 앞머리를 스타카토를 정확하게 표현하여 학생들이 혼란이 오지 않도록 신경 써서 연습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리듬이다.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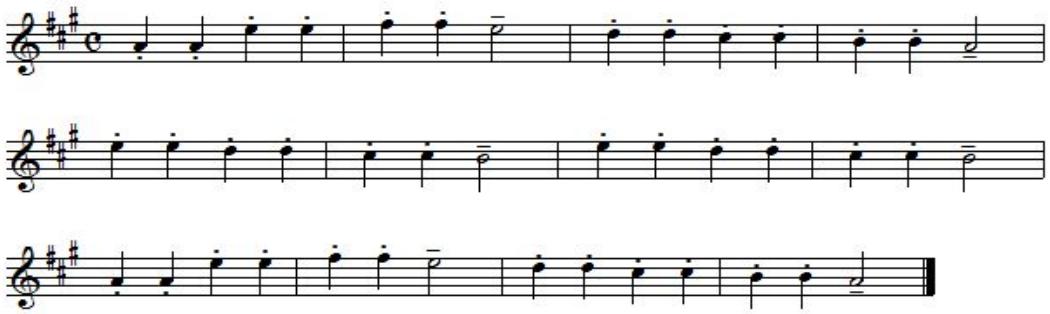
D



<악보 10> 작은별 D

작은별 D는 16분음표로만 구성된 리듬으로 한음의 길이를 모두 똑같이 표현하여야한다. 이때 활을 똑같은 길이로 연주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바이올린 주법 중 하나인 트레몰로를 연습할 수 있다.

E



<악보 11> 작은별 E

작은별 E는 4분음표와 2분음표로 구성된 리듬이다. 또한 스타카토 주법을 통해 아직 바이올린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소리를 한음씩 끊어서 연주함으로써 정확하고 깨끗한 소리를 연주하도록 할 수 있다. 여기에 4분음표는 반활, 2분음표는 온활 쓰기를 훈련하여 작은별 원곡을 아름다운 선율로 연주 할 수 있도록 한다.

Collection @ chosun

3) 3차시 교수 – 학습 과정안

본 교수-학습 과정안 3차시에서는 오르프 교수법 중 악보읽기와 탐색을 적용하였다. '비행기' 악곡을 이용하여 계이름을 읽고, 조바꿈을 연습하게 구성 하였다. 교재에는 '비행기' 악곡이 A현에서 연주 할 수 있도록 나와 있으나, A현 이외의 다른 현들에도 적용하여 연습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4가지 현을 연주하면서 각 현 특유의 느낌을 느끼며 연주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음과음 사이를 연결하여 온활 쓰기를 지도하였고, 박자의 길이에 따라 활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 3차시 학습 과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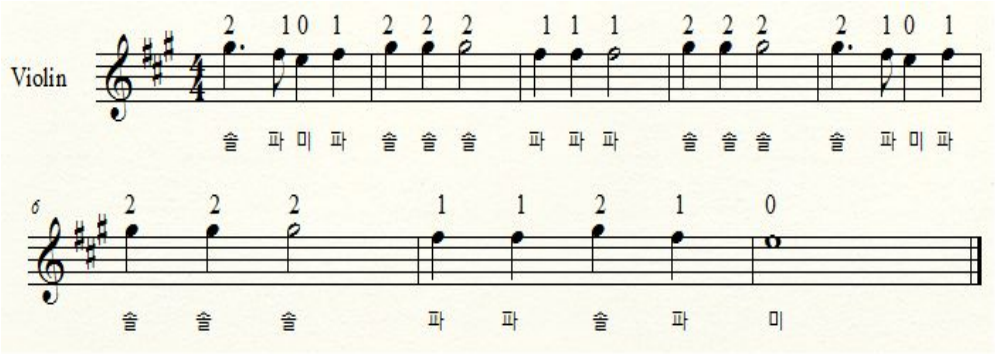
대단원명	다양한 현을 이용한 조바꿈	**차시**	3차시
학습목표	• 조를 바꾸어 계이름을 읽을 수 있다 • 비행기를 다양한 현으로 연주할 수 있다.		

학습과정	**교수-학습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시간**
	교사	**학생**		
도입	• 인사 • 악기 조율을 한다. • 지난시간에 배운 작은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 인사 • 악기를 조립하고 선생님께 조율을 받는다. • 작은별 A부터 E까지 천천히 노래를 부른 후 악기로 연습한다.	악기, 보면대	15"
전개	* 먼저 다함께 알고있는 비행기 가사를 나누어 준다. * 손가락 번호로 악보 없이 연주할 수 있도록 비행기를 숫자로 알려준다.	• 비행기 가사를 보고 큰소리로 노래를 불러본다. • 악보를 보지 않고 비행기 노래를 연주 할 수 있게 숫자로 비행기노래를 배워 불러본다.	오르프 교수법 악보읽기와 탐색을	40"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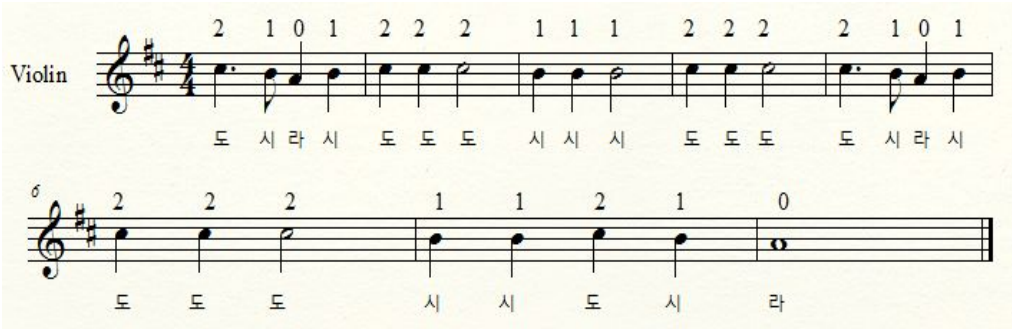
	1. E현에서의 비행기 • “올림솔”을 첫 시작음으로 비행기노래가 시작된다. 2. A현에서의 비행기 • “올림도”를 첫 시작음으로 노래가 시작된다. 3. D현에서의 비행기 • “파”를 첫 시작음으로 노래가 시작된다. 4. G현에서의 비행기 • “시플렛”을 첫 시작 음으로 노래가 시작된다. * 1-4번까지 모든 현을 가지고 비행기를 연주한 후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현이 무엇인지 발표시킨다.	• E현부터 G현까지 연주를 해본다. - 각 현마다 중심음을 잡고 연주한다. - 현마다 주는 느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 연습한다. • 학생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현의 소리를 발표한다. - 같은 현을 선택한 친구들과 합주를 할 수 있도록 그룹을 만들어 준다.	적용	
정리	• 학생들 개인이 좋아하는 현의 비행기를 연습시킨다. • 악기를 정리시킨다.	• 자신이 좋아하는 현의 비행기를 3번씩 연주한다. • 악기를 분리하여 정리한다.	조바뀜을느낀다.	5"
	• 봄바람에 대한 차시예고를 한다.	• 다음시간에 배울 내용을 듣는다.		

Collection @ chosun



<악보 12> 비행기 E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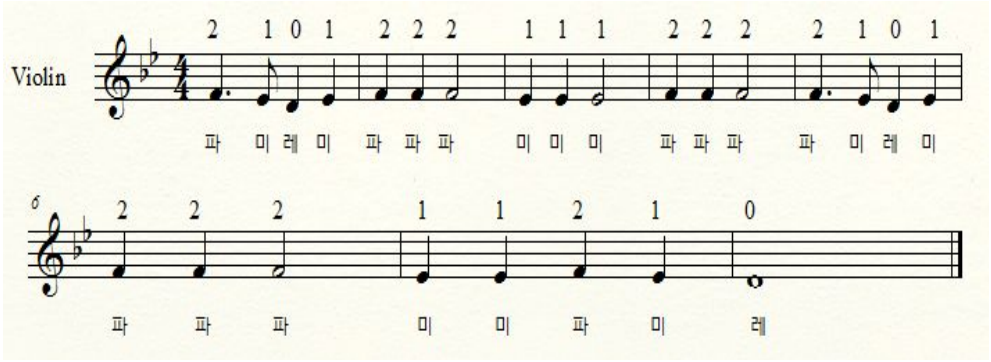
E현에서는 가장조로 '비행기'를 연주하여 가장조의 느낌을 느끼며 연주하도록 지도한다.



<악보 13> 비행기 A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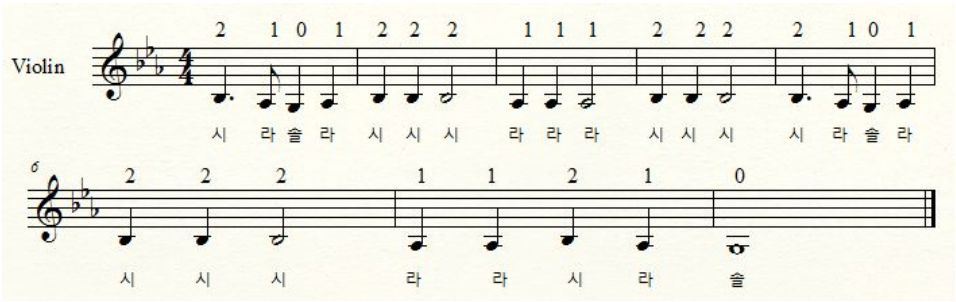
A현에서는 라장조로 '비행기'를 연주하여 라장조의 느낌을 느끼며 연주하도록 지도한다.

Collection @ chosun



<악보 14> 비행기 D현

D현에서는 단조의 가락을 연습하는 과정이다. '비행기'를 사단조로 연주하고 사단조의 느낌을 느끼며 연주하도록 지도한다.



<악보 15> 비행기 G현

G현 또한 단조의 가락을 연습하며 '비행기'를 다단조로 연주하고 다단조의 느낌을 느끼며 연주하도록 지도한다.

이처럼 각 현에서의 '비행기' 악보를 보면 현은 다르지만 운지는 모두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손가락 번호와 계이름 두 가지 방법으로 악보를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었으며 부분적으로 점4분 음표와 8분 음표의 박자를 쉽고 정확히 표현하도록 손뼉 치기와 '점4분, 8'이라고 노래를 불러 지도 할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4) 4차시 교수 – 학습 과정안

본 교수-학습 지도안 4차시에서는 오르프교수법 중 신체표현을 악기에 적용하여 박자와 리듬공부를 하도록 하였다. 즉, 손뼉 치기와 발 박자를 해보면서 '봄바람'에 나와 있는 2분음표, 점4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의 박자길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박자치기가 익숙해지면 동시에 음표의 길이를 생각하며 노래 부르기를 연습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박자의 길이에 따라 활의 양과 속도를 조절하여 연주 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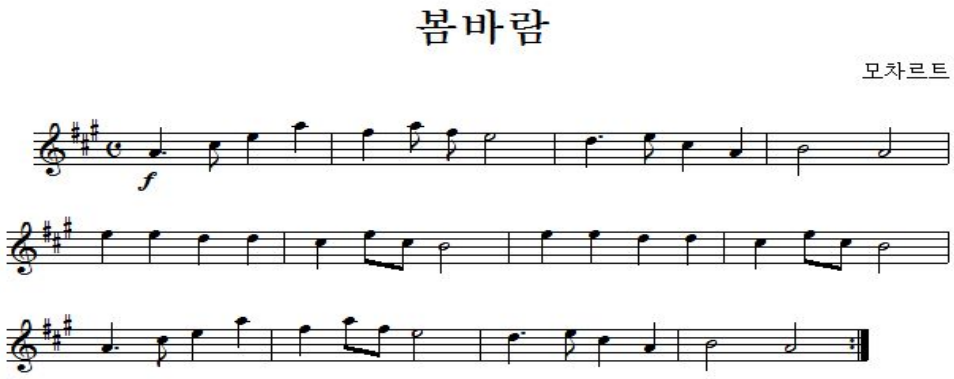
<표 4> 4차시 학습 과정안

대단원명	다양한 박자 구별		차시	4차시
학습목표	• 다양한 음표의 박자를 구별할 수 있다. • 봄바람을 연주할 수 있다.			
학습과정	교수-학습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시간
	교사	학생		
도입	• 인사 • 악기 조율을 해준다. • 지난시간에 배웠던 비행기에서 학생 개인이 맘에 드는 현을 한명씩 시켜본다.	• 인사 • 악기를 조립하여 선생님께 조율을 받는다. • 학생 자신이 마음에 드는 현을 선택하여 연주한다. - 다른 친구들이 연주할 때 경청하여 듣는다.	악기, 보면대,	15"
전개	*봄바람악보를 보면서 음표의 종류를 발표시킨다.	* 봄바람 악보를 보고 점4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 2분음표가 있다는 것을 구별하여 발표한다.		40"

dCollection @ chosun

	1. 점4분음표의 길이를 알려주고 점4분이라고 말하는 동안 손뼉을 치고 누르고 있는 법을 알려준다. 2. 8분음표의 길이를 알려주고 8이라고 말하면서 반 손뼉을 치는 법을 알려준다. 3. 4분음표의 길이를 알려주고 4분이라고 말하는 동안 손뼉을 누르고 있는 법을 알려준다. 4. 2분음표의 길이를 알려주고 2분음표라 말하면서 발을 치고 손뼉을 치는법을 알려준다. 5. 악보를 보고 1-4번까지 배운 음표 박자치기를 반복하여 연습시킨다.	1. 점4분음표의 길이를 정확히 알고 반복하여 손뼉박자를 연습한다. 2. 8분음표의 박자의 길이를 익히고 반 손뼉박자를 반복하여 연습한다. 3. 4분음표의 박자길이를 익히고 손뼉박자를 반복하여 연습한다. 4. 2분음표의 박자길이를 익히고 발과 손뼉박자를 반복하여 연습한다. 5. 손뼉박자와 발박자를 연습하여 선생님이 음표를 말했을 때 바로 몸에서 반응이 올 수 있도록 연습한다.	오르프 교수법 신체표현과 악기연주를 적용	
정리	• 음표의 길이를 알려주고 박자를 한 번 더 알려 준다. • 악기를 정리시킨다.	• 음표에 따라 박자의 길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손뼉박자와 발박자 치기를 해본다. • 악기를 분리하여 정리한다.	리듬과 박자를 정확히 안다.	5"
	• 호만에 나오는 겹음(화음)대한 차시예고를 한다.	• 다음시간에 배울 내용을 듣는다.		

Collection @ chosun



<악보 16> 봄바람

스즈키 교본(p.13)의 '봄바람'을 통해 크고 매끄럽게 정확한 박자를 계산하여 연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작곡가 모차르트의 특징도 간단하게 알아보고 악보 끝부분에 나와 있는 도돌이표(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간다)에 대해서 공부 할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5) 5차시 교수 – 학습 과정안

본 교수-학습 과정안 5차시에서는 오르프 교수법 중 심플 보르둔을 적용시켜 화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화음을 연주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음정이다. 두 음을 정확하게 소리 냄으로써 더욱 풍부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음을 연주할 때와 화음을 연주할 때 활의 각도가 매우 중요하며 소리 낼 때 힘을 빼서 부드럽게 연주할 경우 소리의 어울림을 더 잘 표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중점을 두고 지도 하였다.

<표 5> 5차시 학습 과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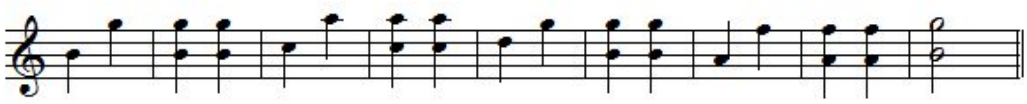
대단원명	소리의 울림 느끼기	차시	5차시
학습목표	• 소리의 울림을 느낄 수 있다. • 겹음(화음)을 켤 수 있다.		

학습과정	교수-학습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시간
	교사	학생		
도입	• 인사 • 악기 조율을 한다. • 지난시간에 배운 손뼉박자와 발박자치기를 다 같이 시켜본다.	• 인사 • 악기를 조립하여 선생님께 조율을 받는다. • 음표에 따라 발과 손뼉박자를 치고 지난시간에 배운 봄바람을 완성시킨다.	악기, 보면대,	15"
전개	* 개방현 A현과 E현을 이용해 동시에 소리를 내는 법을 알려준다. -한 가지 음을 소리 낼 때의 팔꿈치의 각도와 화음을 낼 때의 각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느끼게 해준다.	• 개방현을 한음씩 소리 내고 그 다음 각도를 조절하여 같이 소리를 내본다.	오르프 교수법 중 심플보르둔을 적용	40"

Collection @ chosun

	- 정확한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힘을 더 빼서 연주 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1. “시”와 “솔”의 화음 •A현 1번 “시”를 긋는다. •E현 2번 “솔”을 긋는다. •A현 1번 “시”와 E현 2번 “솔”을 함께 소리 낸다. 2. “도”와 “라”의 화음 •A현 2번 “도”를 긋는다. •E현 3번 “라”을 긋는다. •A현 2번 “도”와 E현 3번 “라”을 함께 소리 낸다. 3. “라”와 “파”의 화음 •A현 0번 “라”를 긋는다. •E현 1번 “파”을 긋는다. •A현 0번 “라”와 E현 1번 “파”을 함께 소리 낸다. * 악보를 보고 1-3번까지 알려준 화음을 켤 수 있게 한음씩 알려주고 짚도록 해준다.	• 정확한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힘을 빼고 반복하여 연습한다. •1-3번의 악보를 보고 한음씩 음정을 짚고 소리를 낸 다음 두 음정을 같이 낸다. -스티커를 정확히 짚지 않을 경우 음정이 불안하여 화음이 무너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음정을 짚도록 연습한다. •화음을 연습하면서 한음을 낼 경우와 다른 점을 느끼고 정확한 음정을 켰을 경우 화음의 아름다운 선율과 악기의 울림을 몸으로 느껴본다.		
정리	• 화음을 켜는 각도를 한번 더 알려준다. • 악기를 정리시킨다.	• 개방현으로 화음을 켜는 기초를 연습한다. • 악기를 분리하여 정리한다.	화음의 어울림을 듣는다.	5"
	• 알레그로에 대한 차시예고를 한다.	• 다음시간에 배울 내용을 듣는다.		

Collection @ chosun



<악보 17> 심플 보르둔 – 호만

위의 악보를 보면 한음을 먼저 켜고 난 후 손가락을 떼지 않고 다음 음을 켜고 두음을 함께 켤 수 있도록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음정을 정확하게 짚어 소리의 울림을 느낄 수 있으며 마지막에는 두음을 한 번에 소리 내어 화음연주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Collection @ chosun

6) 6차시 교수 – 학습 과정안

본 교수-학습 과정안 6차시에서는 오르프교수법 중 악기연주를 적용하여 합주 수업을 실시하였다. 오르프악기(타악기, 리듬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선율악기인 바이올린도 리듬과 박자를 정확히 표현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합주를 통해 학생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표 6> 6차시 학습 과정안

대단원명	합주에 대해 알기	차시	6차시
학습목표	• 합주를 통해 협동심과 배려심을 기를 수 있다. • 알레그로를 배우고 합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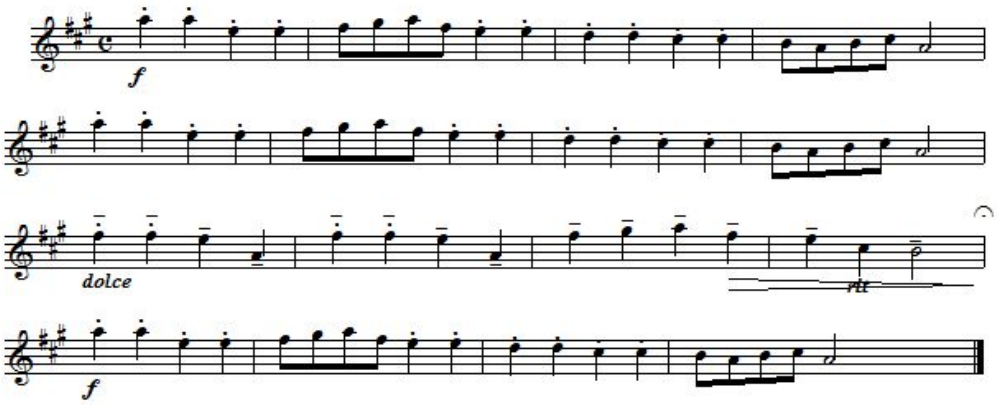
학습과정	교수-학습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시간
	교사	학생		
도입	• 인사 • 악기를 조율해 준다. • 지난시간에 배웠던 겹음(화음)을 다시 한 번 시범을 보이고 시켜본다.	• 인사 • 악기를 조립하고 선생님께 조율을 받는다. • 정확한 두 음의 소리가 정확히 나도록 연주해 본다.	악기, 보면대	10"
전개	1. 알레그로 악보를 보고 계이름을 알려준다. - 숫자(손가락번호)로 악보 읽기를 알려준다. 2. 활바꾸기 방법을 알려준다. 이때 활바꾸기라고 말하면서 바꿀 경우 쉽게 익힐 수 있다.	1. 계이름과 숫자로 알레그로를 노래불러본다. 2. 한 줄을 켜고 난 후 활바꾸기라고 말하면서 활을 바꾸는 연습을 한다.	오르프 교수법 중 악기연주를 바이올린 합주에	45"

Collection @ chosun

	3. 알레그로가 악보를 보고 바이올린 연습을 시킨다. 4. 다같이 합주를 한다. - 서로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맞추도록 한다. 5. 합주를 통해서 느낀 점을 발표시킨다.	3. 악보를 보고 알레그로를 반복해서 매끄럽게 연주될 때까지 연습한다. 4. 친구들의 소리를 서로서로 들어가면서 박자와 빠르기를 맞춰서 한 소리로 합주를 해본다. 5. 합주를 통해 느낀 점을 발표해본다.	적용시킨다. 그리고 합주의 목적과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정리	• 합주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알려준다. • 악기를 정리시킨다.	• 알레그로를 합주해 본다. • 악기를 분리하여 정리한다.	협동심과 배려심을 배운다.	5"
	• 그옛날에 대한 차시예고를 한다.	• 다음시간에 배울 내용을 듣는다.		

Collection @ chosun

알레그로



<악보 18> 알레그로

스즈키교본(p.14)의 알레그로를 통해 스타카토 주법과 레가토 주법을 배운 후 주법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습한다. 그리고 음악기호 포르테(크게), 테누토(그음을 충분히), 데크레센도(점점여리게), 리타르단도(점점 느리게), 늘임표(그음을 두세배 늘여서), 돌체(부드럽게)를 통해서 곡의 완성도를 높여서 연주 할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3. 설문조사 및 통계

1) 조사내용과 대상

본 연구자가 구안한 오르프 중심의 바이올린 지도를 6차시 동안 진행 후 설문조사하였다. 기간은 2014년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이고, 광주 S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중 바이올린 특기적성에 참여한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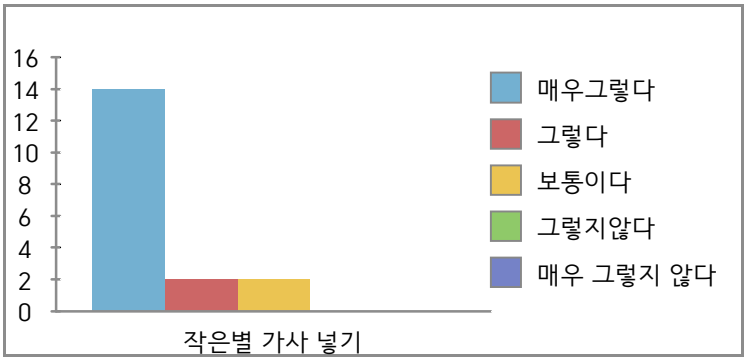
1) 설문지 결과 분석

가. 모방과 노래부르기 (작은별 변주곡) – 2차시

다음은 2차시 수업을 적용하여 리듬에 가사를 넣어 노래를 부르는 방식으로 지도하였을 경우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결과이다.

설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가사를 넣어서 배웠을 경우 즐겁게 배웠는가와 두 번째는 가장 어렵게 느껴진 리듬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표 8> 설문지 1번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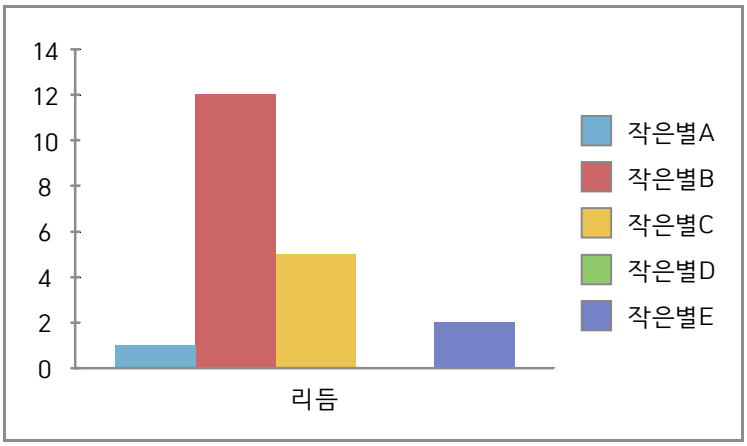


Collection @ chosun

작은별 변주곡에 모방과 노래부르기를 적용했을 경우 리듬을 노래로 부르고 난 후 대부분의 학생들(70%)은 쉽고 빠르게 리듬을 익힐 수 있었으며 쉽게 악기로 연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바이올린 수업에서 먼저 리듬치기 연습에 중심을 둔 오르프 교수법을 적용하여 지도하였을 경우 효과를 볼 수 있었다.

2차시에 작은별 변주곡의 다양한 리듬을 오르프 교수법에 똑같이 적용하여 수업하였지만 모두 쉽게 연주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도 어려운 리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어렵게 느껴진 리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 설문지 2번 결과



A부터 E까지의 다양한 리듬 중 작은별 B(60%)의 리듬이 가장 어려웠다고 대답했다 그 이유는 중간에 쉼표가 있어서 다른 리듬보다는 어렵게 느껴졌다고 대답했고 때문에 다른 리듬보다 훈련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소수의 학생들(25%)은 작은별C의 리듬이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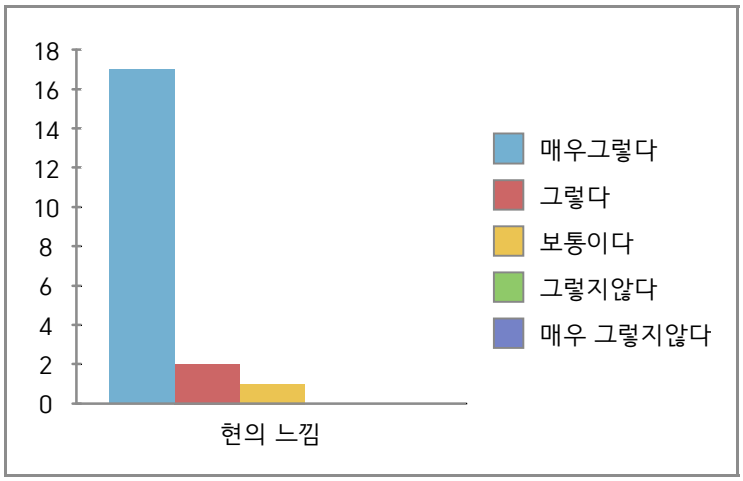
Collection @ chosun

나. 악보읽기와 탐색 (비행기) – 3차시

다음은 3차시 수업 중 비행기를 통해 오르프 교수법 중 악보읽기와 탐색을 적용하여 수업하였다. 이를 통해 조옮김을 하면서 다양한 현의 느낌을 느낄 수 있었는지에 대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현에 따라 느낌이 다른 것을 느꼈는지, 두 번째는 연주 후 가장 좋아하는 현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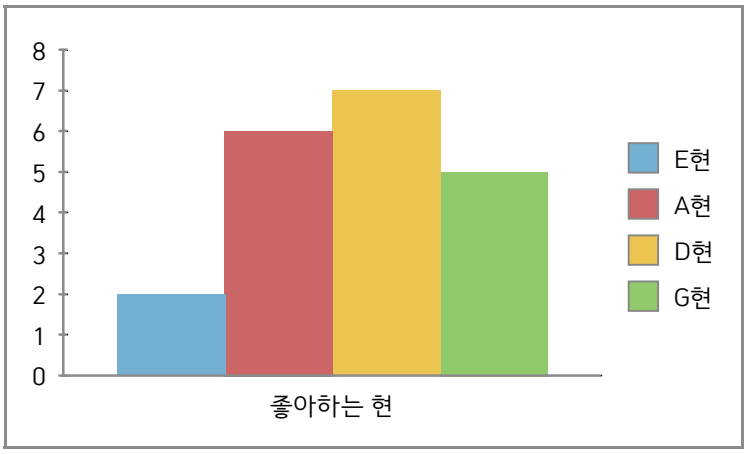
<표 10> 설문지 3번 결과



비행기를 적용해 가사를 넣어 수업을 하고 기본음을 정해 준 후 네 가지 현에서의 노래의 느낌을 느낄 수 있게 수업을 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85%)은 현의 느낌을 정확히 구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손가락 번호로 악보 보는 방법을 배웠더니 악보를 보지 않고 조성의 기본음을 정해주면 바로 연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오르프 교수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악보를 읽고, 조바뀜을 통해 바이올린을 배웠을 때 학생들이 쉽게 연주 할 수 있음을 알았다.

Collection @ chosun

<표 11> 설문지 4번 결과



위의 표를 보면 다양한 현을 연주하고 난 후 자신이 좋아하는 현의 느낌을 정확하게 선택한 것을 보면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비행기를 연주할 경우 자신이 선택한 현으로 반복학습을 했을 때 더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조옮김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현을 어려워하지 않고 연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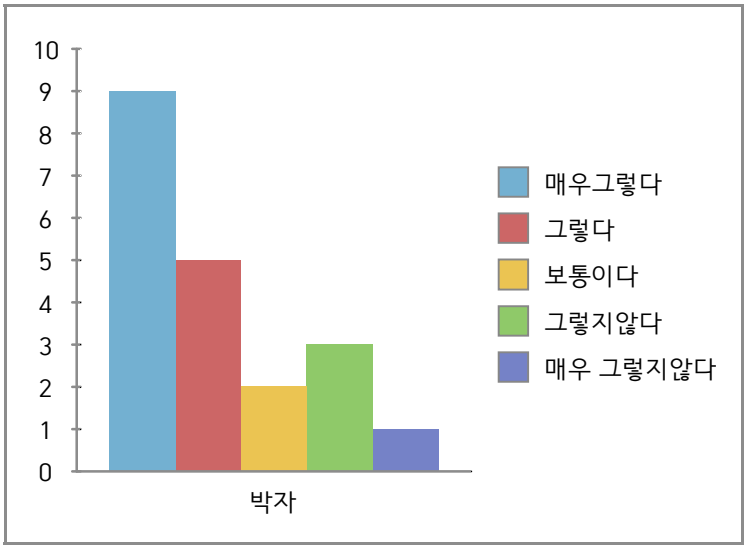
Collection @ chosun

다. 신체표현과 악기연주 (봄바람) – 4차시

다음은 오르프 교수법에서 신체표현과 악기연주 중 신체타악기를 적용해 손뼉치기와 발 박자를 통해 정확한 박자를 알고 봄바람을 연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이다.

설문은 박자는 더 쉽게 익힐 수 있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표 12> 설문지 5번 결과



봄바람으로 신체표현과 악기연주 중 신체 타악기를 적용한 학습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몸으로 박자치기를 한 후 연주하였더니 음표의 길이를 정확하게 표현 할 수 있었다고(매우 그렇다45%, 그렇다25%, 총70%) 학생들이 대답했다.

또한, 점4분음표와 8분음표를 정확히 구별하여 3등분으로 나누어 연주 할 수 있었으며 신체를 이용해 반복하여 학습을 하였더니 무의식중에 자신도 모르게 박자를 세고 있다고 말해준 학생들도 있었다. 즉, 오르프 교수법을 박자에 적용하여 수업한 결과 학생들은 박자의 길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음악 수업을 미리 받았던 학생들(15.5%)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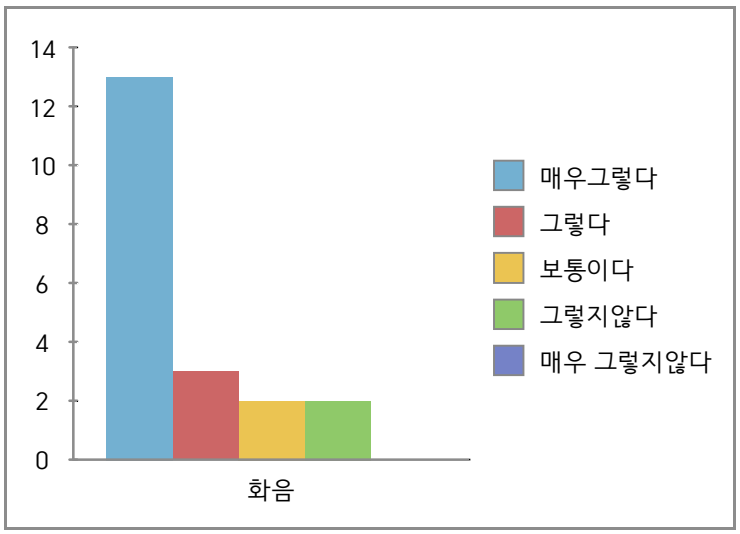
Collection @ chosun

라. 심플보르둔 (화음) – 5차시

다음은 오르프 교수법 중 심플보르둔을 이용해 화음을 배워 연주 했을 경우 소리의 울림을 몸으로 전달 받았는지에 대한 결과이다.

설문은 화음을 통해 울림이 몸으로 전달되는 것을 느꼈는가에 대한 것이다.

<표 13> 설문지 6번 결과



호만의 화음악보를 통해 심플보르둔을 적용하여 수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들(매우 그렇다65%, 그렇다15%, 총80%)은 한음을 켰을 때보다 울림이 더 좋다는 것을 느꼈고 또한 음정을 정확하게 소리 냈을 경우 더욱 울림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듯 오르프교수법을 화음에 적용시켜 바이올린 수업을 통해 울림을 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 간단한 화음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의 바이올린연주가 수준이 높아진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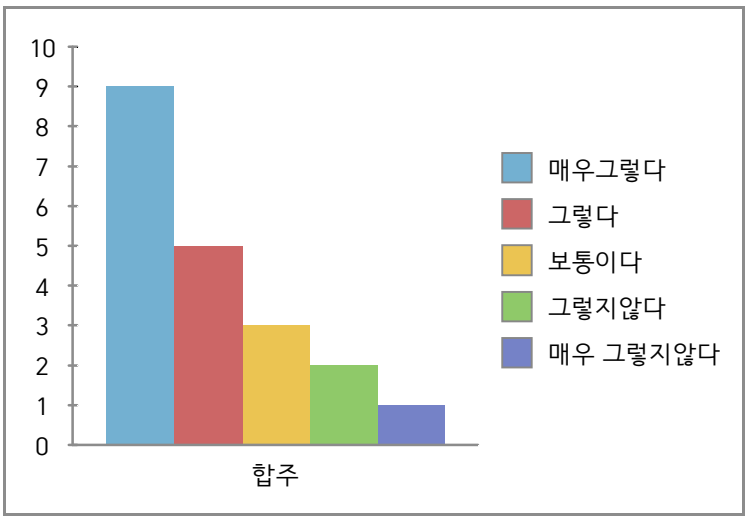
Collection @ chosun

마. 협동심 (합주) – 6차시

다음은 오르프악기(리듬합주)연주를 바이올린 합주에 적용시켜 학생들이 합주를 통해 협동심과 배려하는 마음을 배웠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이다.

설문은 합주를 통해 협동심과 배려심을 배웠는가에 대한 것이다.

<표 14> 설문지 7번 결과



반복이 많이 되는 곡으로 처음 합주를 하는 학생들이 쉽게 호흡을 맞춰 연주할 수 있게 수업을 하였다. 이 결과 학생들(매우 그렇다 45%, 그렇다 25%, 총 70%)은 합주를 하면서 자신의 소리만이 아닌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배려심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합주를 통해 하나의 작은 소리가 합쳐져 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협동심도 기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자신의 박자와 리듬으로만 연주하던 학생들이 오르프교수법 중 합주를 바이올린 지도안에 적용시킨 수업을 통해 정확한 박자와 리듬을 다함께 연주 할 수 있게 되었다.

Collection @ chosun

Ⅳ.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오르프 교수법을 적용한 초등학교 특기적성 바이올린 교수-학습지도안을 연구하여 수업시간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르프 교수법을 적용하여 총 6차 학습지도안을 연구하였고 이를 광주광역시 S 초등학교 특기적성 바이올린부 1학년부터 6학년 20명을 대상을 적용하여 수업한 설문지를 분석하여 결과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바이올린의 정확한 기초 자세를 잡을 수 있었다.

1차시에 오르프 교수법 중 말하기를 적용한 학습안으로 수업을 하고 난 후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반복학습을 통해 정확한 운지와 보잉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수준에 못미친 학생이 나타났을 경우 배운 내용을 친구들과 서로 확인 하면서 알려주면서 연습을 하였고 이를 통해 더욱 정확한 자세를 잡을 수 있었다.

둘째, 흥미를 잃지 않고 끝까지 연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르프교수법 중 2차시에는 모방과 노래 부르기, 4차시에는 신체표현과 악기연주 중 신체타악기를 적용시킨 결과 악기만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수업하는 방식보다 신체를 이용해 박자와 리듬을 익히고 노래를 불러가면서 수업을 할 경우 곡을 빨리 이해하고 정확한 악보를 연주 할 수 있다는 것이 설문을 통해 증명되었다.

셋째, 악기로부터의 진동을 신체로 직접 느낄 수 있게 되었다.

3차시에 오르프 교수법 중 악보읽기와 탐색을 적용시킨 수업을 하고 난 후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악기의 진동을 직접 신체로 느꼈다고 말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같은 교실에서 똑같이 수업을 했지만 조옮김을 통해 바이올린의 모든 현을 연주한 결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호하는 선율의 느낌이 있다는 것을 발표를 통해 알 수 있었다. 5차시에는 심플보르둔(화음)수업으로 인하여 한 음을 연주할 때보다 화음을 연주할 경우 그리고 음정이 정확할 때 울림을 더 강하게

Collection @ chosun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화음을 연주하면서 수준이 높아졌다 생각되어 자신감도 생겨났다.

넷째, 합주를 통해 배려심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다.

6차시에는 오르프 교수법 중 악기연주(리듬악기 합주)를 적용시킨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연주를 하면서 상대방 소리를 함께 들어가며 맞춰나가는 것을 통해 배려심을 배웠다. 그리고 하나의 작은 소리가 합쳐져 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협동심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개인연습만 할 때보다 박자의 길이와 리듬을 더 정확하게 연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오르프 교수법을 적용한 바이올린 수업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학습목표를 이루도록 노력하였고 각 차시마다 오르프 이론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었다. 즉, 오르프교수법은 타악기연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현악기에서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기적성 교육에서 바이올린 수업은 모든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장 인기 있는 음악수업으로 더욱 활발하고 흥미로운 수업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수업안을 연구하였다. 짧은 수업이었지만 이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바이올린의 기본자세와 음악의 기초요소를 정확히 배울 수 있는 수업이 되도록 학생활동의 구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기간의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에게서 끌어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악기연주는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므로 수업안을 체계적으로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음악학습이 더욱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처럼 오르프 교수법에 다양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적용하여 활용한다면 기존의 틀에서 학습하기 힘들었던 음악의 즐거움을 일깨워 주고 수업의 질을 향상 시키는 수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현재 학교에서 바이올린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활용되길 바란다.

Collection @ chosun

참 고 문 헌

교육인적자원부(2007).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교육인적자원부.

교육학용어사전(1995).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2008). **음악교육의 기초**. 경기:교육과학사.

박미애(2008). 초등학교 특기적성 교육을 중심으로 오르프 교수법에 기초한 플루트 실기 지도안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성지현(2009).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오르프 교수법을 적용한 음악수업 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송경헌 외(2001). **방과 후 특별활동 이렇게 운영해 보세요**. 서울시 교육청.

승윤희(2000). **감성지능의 이해와 음악 교육의 역할. 음악교육 Vol. 19 No.1**.

예술체육 - 학문명백과, 음악교육학.

윤애지(2012). 방과 후 특기적성 음악프로그램 참여 실태 및 학생 인식: 강남, 강북지역 중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용혁(2012).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칼오르프 교수법을 적용한 음악수업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종태(2000). **새교육** 서울 : 한국교육신문사.

이지원(2013). 오르프 교수법을 적용한 초등학교 방과 후 그룹 피아노 수업 지도안 개발. 성신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홍수(1994).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세광음악 출판사.

임미경, 장기범, 함희주 공저(2002).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벨로체.

장윤하(2011). 스즈끼 바이올린 교본 1권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바이올린 특기적성 교육의 효율적 학습지도안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순자(2003). 초등학교 특기적성 교육에 있어서 음악프로그램의 효율적인 방

Collection @ chosun

안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정은, 윤성원(2009). **음악교수매체학**. GMK.

조주연(2008). 칼 오르프의 음악교수법을 활용한 음악학습지도 방안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현희(2009). 초등학교 그룹지도를 중심으로 코다이 교수법을 적용한 바이올린 특기적성교육 학습지도안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진소희(2008). 시노자키, 호만, 스즈키를 중심으로 바이올린 특기적성 지도를 위한 기초교재 분석 및 지도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초·중등교사 학교특별활동 직무연수(2001). **특기·적성 교육의 활성화 방안.**

한국교육과정 평가연구원(2000) **방과후 특별활동 지도방안.**

http://www.orff.org

Collection @ chosun

<부록>

설 문 지

바이올린 수업 후 자신이 느낀점을 문항에 맞게 확인해 주세요.

오르프 요소 (악곡)	문항	내 용	a	b	c	d	e
모방과 노래부르기 (작은별)	1	작은별 변주곡에 가사를 넣어서 배웠을 경우 더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었는가?					
	2	작은별 변주곡 중 가장 어렵게 느껴진 리듬을 무엇인가?					
악보읽기와 탐색 (비행기)	3	비행기를 통해 현에따라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가?					
	4	비행기를 연주하고 가장 좋아하는 현은 무엇인가?	E	A	D	G	
신체표현과 악기연주 (봄바람)	5	봄바람을 통해 손뼉박자와 발박자를 통해 박자를 더 쉽게 익힐 수 있었는가?					
심플보르둔 (화음)	6	화음을 배우면서 소리의 아름다움과 울림이 몸으로 전달되는 것을 느꼈는가?					
악기합주 (알레그로)	7	합주를 통해 친구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협동심과 배려심을 배웠는가?					
	8	이 수업을 통해 느낀점을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a. 매우 그렇다 b. 그렇다 c. 보통이다 d. 그렇지 않다 e. 매우 그렇지 않다

Collection @ chosun